

미래의 실력은 마음! 원불교는 마음이다

원기 100년 교화연구소 정기 연구발표 II

급변하는 미래시대의 다양한 교화 모델 창출

일시 원기 100년 9월 14일(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원불교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주관 원불교 교정원 교화연구소

㉠ 차 례 ㉠

□ 회 순

□ 화상대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회 5
김민수 교도

□ 행복프로그램의 다면적 활용을 통한 미디어 교화모델 · 29
문은식 교무

□ 미래교화를 위한 교도중심 창의적 교화공동체 모델 창출
김영찬 교도 37

□ 다문화가정 교화사례 발표 43
정인덕 교무

□ 메 모

㉠ 회 순 ㉠

1. 개 회

2. 입 정

3. 설명기도

4. 격려사

5. 발 표

◆ 발표 1 : 화상대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회
(김민수 교도/서울대학교 행아웃 총단장)

◆ 발표 2 : 행복프로그램의 다면적 활용을 통한 미디어 교화모델
(문은식 교무/서울교구)

◆ 발표 3 : 미래교화를 위한 교도중심 창의적 교화공동체 모델 창출
(김영찬 교도/강남교당)

◆ 발표 4 : 다문화가정 교화사례 발표
(정인덕 교무/남원교당)

6. 마무리 인사

7. 폐 회

발표 1

화상대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회

김민수 교도

▷ 서울대학교 행아웃 총단장



원기 100년도 하반기 정기연구발표

화상대화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교화모델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

원기 100년 9월 14일 월요일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 총 단장
김민수 교도

발표 순서

- I. 서론
- II. 운영방법
- III. 활동보고
- IV. 기타





서론

1. 온라인 교화
2. 이상적 교화 방식

온라인 교화, 그 가능성은?

- 온라인
 - 불특정 다수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공간
- 온라인 소통의 유형
 - E-mail, 채팅, 영상 통화
 - 카페, 블로그
 - Youtube 등을 통한 콘텐츠 공유
 - SNS (Social Network Society)
 - ✓ 개방적 SNS → 폐쇄적 SNS
 - 인터넷 방송
- 원불교의 온라인 교화의 시작
 - 원기 82년 5월 원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 사이트(<http://www.wonbuddhism.or.kr>)를 오픈
 - 원기 96년 4월 4일 중앙 총부 직원 전체 조회에서 경산종법사님을 모시고 전산실과 국제부 주관으로 온라인 사이버 교화를 알리는 식을 가짐

원불교 온라인 교화 예시 I

- 홈페이지 운영
 - <http://www.won.or.kr>
 - <http://www.wonbuddhism.org/>
 - <http://www.wonmuseum.net/>
 - <http://phila.wonbuddhism.info/>
 - 교당별 홈페이지, 카페 운영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 교전
 - 유무념 공부



원불교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예



원불교 온라인 교화 예시 II

- SNS
 - Facebook 페이지
 - ✓ 원불교는 치킨 먹어도 됨
 - ✓ 원불교 소식
 - ✓ 원불교 종법사 Venerable Kyungsan
 - Facebook 그룹
 - ✓ 교당오빠, 교당누나



원불교는 치킨 먹어도 됨



원불교 소식



교당오빠, 교당누나



원불교 종법사 Venerable Kyungsan



원불교 온라인 교화 예시 III

- 영상 콘텐츠 게시



Youtube – Wonbuddhism 원불교



원불교 온라인 교화의 현황

-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화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
 - 홈페이지 운영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 Youtube 콘텐츠 게시
- 쌍방향 소통
 - SNS Facebook 페이지
 - SNS Facebook 그룹
- 끊임없는 시도

2만 단장 영성을 목표로 운영해 오던
교화단체학교 서비스를 3월 9일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정원 교화훈련부에서는
교화단체학교를 대신할 새로운 온라인 교육 서비스 체제로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MOU를 체결하고
원불교고도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원불교 교회학교'를 준비 중이오니
양해에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원 교화훈련부-

<http://www.wonedu.or.kr/>



이상적인 교화/법회 방식은?



집단 법회

- 다수의 대중에게 한, 두 사람의 교화자가 효과적으로 교화를 할 수 있는 방법
- 일반적으로 한 방향 소통이 이루어짐



회화 법회 (교화단회)

- 교화단원 간에 공부한 바를 서로 문답하며 공부하는 방법
-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짐

두 가지 방식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



최첨단 온라인 교화단
行-OUT 

운영 방법

1. 개요
2. 목적
3. 사람들
4. 프로그램 개요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이란?

21세기 법회는 집에서 볼 줄 알았다
최첨단 온라인 교화단
 行-OUT 



행아웃 교화단이란?
 주 1회, 언제 어디서나 OK
 특급 멘탈 회복 프로젝트

문의 : 010 - 4124 - 4438
 총단장 김민수



행아웃 프로그램이란

- Google에서 개발한 화상 대화 프로그램
- 컴퓨터 또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접속 가능
- 무료 회원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대화에 참여 가능
- 화상 대화 외에, 화면 공유, 채팅 등의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
- 추가적으로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이 음악 편집 프로그램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Add-on 시킬 수 있음



컴퓨터를 이용한 접속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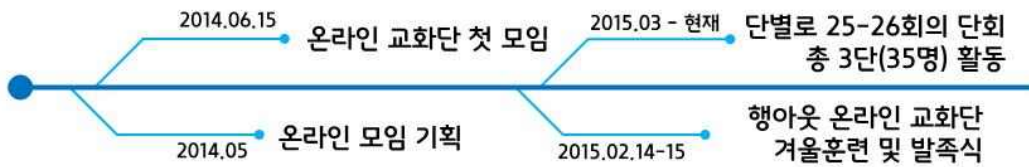


핸드폰을 이용한 접속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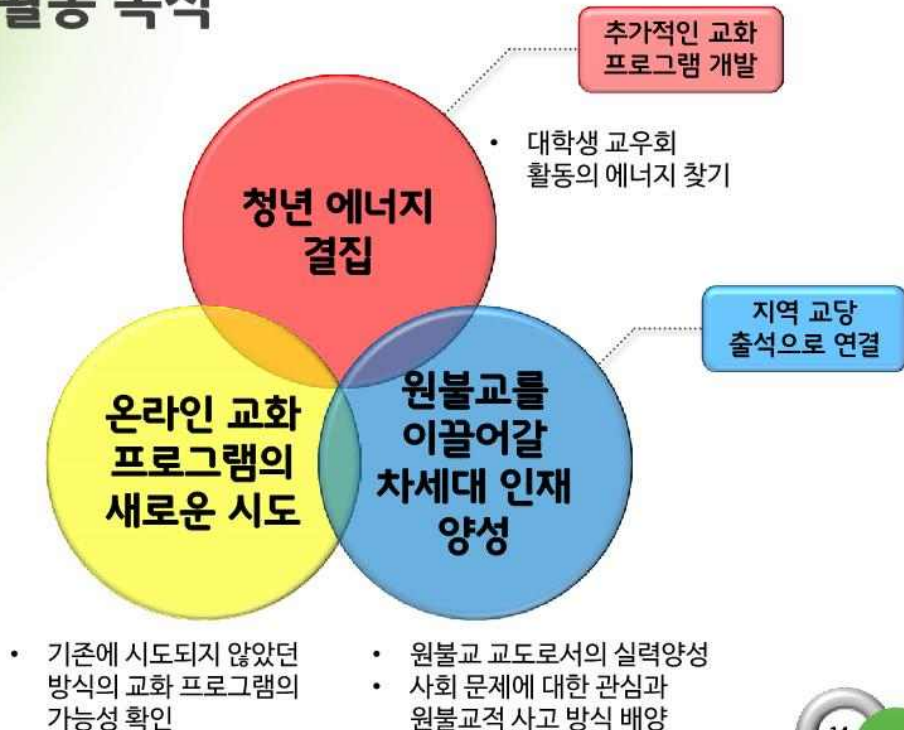


시작하게 된 계기

- 조금씩 원불교/마음공부와 멀어지는 청년들에 대한 고민
 - 교우회를 열심히 활동했던 교도가 졸업 후에 지역 교당에 출석하지 않는 현실은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
 - 출석하지 않는 원인
 1. 새로운 교당을 찾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
 2. 사회 생활의 시작 -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해
 3. 인간 관계 확장을 위한 노력
 - 원인의 해결책으로 기존의 인연을 활용할 방법 고안
- 같은 시기에 교우회 활동을 했던 청년 10명이 대학 시절 활동의 즐거움을 다시 찾고자 모임
-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인터넷 화상 대화로 교화단을 구성



교화단 활동 목적



사람

- 단별 임원 구성
 - 단별로 임원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운영

	1단	2단	3단
단장	황서진	김윤지	조현웅(민군)
중앙	김민수	조윤후(경흠)	김도재(병재)
교화부장	김혜민	오준영	박세주(상호)
연구부장	김화인	한기원(정배)	박지현
총무부장	박성범		이언석
단원	성정익(주환) 박천경 박정은 송진수(영도) 김원민 한지훈 김은주(지수) 윤은솔(지영)	정법종(호진) 정세기(재원) 임하연(병정) 공명인 유성만(병주) 박대술 김혜원 김소인(소영)	김서원(건엽) 허선정(설) 허성근(승규) 송가야(겨레) 우인범(승범)
지도인	고원국 교무	지수연 교무	박대성 교무



단장회의 운영

- 주요 사항 결정
- 온라인 수시 모임



김민수
총단장

* 원대연: 원대연 원불교 전국 대학생 연합회
서대연: 원불교 서울교구 대학생 연합회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 ✓ 서대연 회장
- ✓ 방배교당 청년회 회장, 부회장
- ✓ 한양대 교우회 회장
- ✓ 원대연 감사
- ✓ 미래세대희망위원회 대학생 분과 위원



윤지영(은솔)
총중앙

뮤지컬 배우

- ✓ 현 분당교당 청년회 회장
- ✓ 원대연 대외 보은부장



조세웅(창순)
교화부장

- KAIST 박사과정
- ✓ 원대연 회장
 - ✓ KAIST 교우회 회장
 - ✓ 미래세대희망위원회 대학생 분과 위원
 - ✓ 원치될 페이지 운영
 - 2013 SNS 교화 우수상 (종법사님 수여)



김화인
연구부장

- ✓ 원대연 연구부장



조윤후(경흠)
총무부장

- LG화학
- ✓ 서대연 부회장
 - ✓ 한양대 교우회 회장



황서진
1단 단장

- ✓ 원대연 부회장



김윤지
2단 단장

- GIST 박사과정
- ✓ 서대연 총무부장
 - ✓ 한양대 교우회 회장



조현웅(민군)
3단 단장

- 세명대 한의학과 재학
- ✓ 원대연 정보통신부장



단별 임원 역할

- 단별로 임원을 두어 자치적으로 운영
 - 단장
 - ✓ 단회를 주재
 - 중앙
 - ✓ 단장의 업무 보조
 - 교화부장
 - ✓ 매주 단회 공지
 - 연구부장
 - ✓ 회화 및 각종 프로그램 기획
 - 총무부장
 - ✓ 전체 회비 미납자 관리,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별회비 관리
 - 생일부장
 - ✓ 단원들의 생일을 공지
 - 편집부장
 - ✓ 법회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 마음일기 문서화



운영방식

- 주 1회 온라인 교화단회
 - 약 1시간 30분 정도의 교화단회
 - 각 주마다 테마를 가지고 교화단회를 운영
 - 교화단회 시간
 - ✓ 1, 2단: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 ✓ 3단: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 밴드
 -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폐쇄적 SNS 서비스인 “BAND”를 공지사항 전달 및 상호 의견 교류의 장으로 활용
- 오프라인 모임
 - 분기별로 오프라인 모임을 운영
- 훈련
 - 여름/겨울 정기 훈련

주별 교화단회 테마

1주	지도인 주도 법회
2주	강연 및 회화
3주	심신작용 처리건 회화
4주	스페셜토크 - 사회문제에 대한 주제로 회화



주별 단회 테마 I

- 1주차 - 지도인 주도 법회
 - 지도인이 주도하는 활동이 주요한 프로그램인 단회
 - 지도인에 따라 설교 법회, 선수련 법회로 진행
 - ✓ 설교 법회: 월별로 특색에 맞는 주제를 다룸
 - ✓ 선수련 법회
 - 선에 대한 문답
 - 선 (20분) 후에 감각을 회화로 공유

- 2주차 - 강연 & 회화
 - 강연자의 강연을 듣고 같은 주제의 회화를 진행
 - 강연 주제
 - ✓ 사은 사요 삼학 팔조로 진행 → 19개월
 - ✓ 계문, 술성요론 진행
 - 강연이 발제가 되고 자연스럽게 단원들의 회화로 이어짐



주별 단회 테마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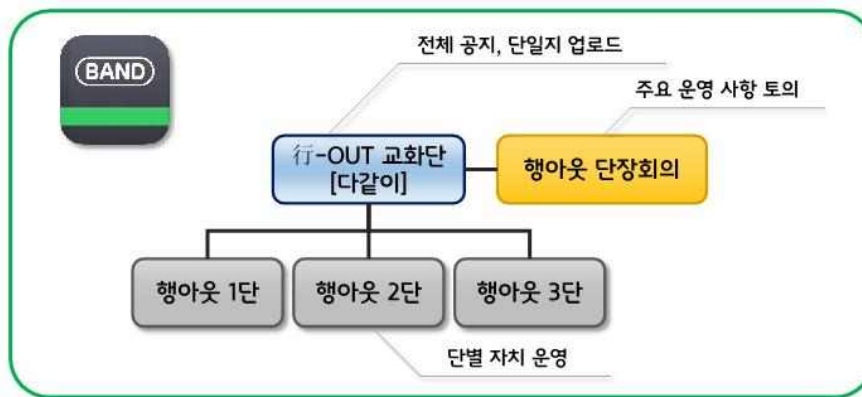
- 3주차 - 심신작용 처리건
 - 교화단원 각자가 한 주간의 심신작용 처리건을 간략히 정리하여 발표
 - 단원 간의 회화와 지도인의 감정

- 4주차 - 스페셜 토크
 - 이슈가 되는 사회 문제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주제로 회화
 - 주제 예시
 - ✓ 남북 긴장 고조
 - ✓ 집단과 개인 사이의 나 - 동포은과 연결하여
 - ✓ "열심히 일한자, 일해라!"
 - ✓ 찌는 여름 더위를 피하는 자신만의 방법
 - ✓ 음악 (라디오 방송), 연애, 여행



밴드 운영

- 전체 밴드운영
 - 전체 공지, 특별 이벤트, 사진 공유, 단일지 업로드
- 각 단별 밴드운영
 - 1단: 마음일기 공유 및 감정, 단 운영 사항 결정, 이벤트, 사진 공유
- 단장회의 밴드운영
 - 주요 운영사항 토의



여름/겨울 정기 훈련

- 목적
 - 1박 2일간 교리 공부와 친목 증진의 목적으로 진행
- 훈련 프로그램 예시
 - 특강
 - 선수련
 - 회화
 - 강연
 - 놀이 프로그램
 - 행아웃 교화단 개선 회의
- 단장회의와 별도로 훈련 준비팀이 훈련 기획 및 준비
 - 운영의 부담을 분담

6:00	7:00	반갑습니다.	기상 및 좌선
7:00	8:00		아침식사 및 강연 준비
8:00	9:00		강연 발표
9:00	10:00		행아웃 프로그램 구상
10:00	11:00	접수	해제식
11:00	12:00		결제식
12:00	13:00	특강	또 만나요.
13:00	14:00		
14:00	15:00	종법사님 배알 (2:50~4:00)	
15:00	16:00	성지순례 미션 게임 (4:20~5:30)	
16:00	17:00	저녁식사	
17:00	18:00		
18:00	19:00	선 수련	
19:00	20:00		
20:00	21:00	회화	
21:00	22:00		
22:00	23:00	취침	

여름 훈련 일정표



단별 특별 활동

- 1단
 - 릴레이 마음일기
 - ✓ 네이버 밴드를 이용하여 마음일기를 릴레이로 작성
 - ✓ 각자 감상 및 지도인의 감정을 댓글로 공유
 - 조석 심고 유무념

- 3단
 - 법문 올리기
 - 매일 심신 작용 처리건 공유
 - 1분선
 - ✓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매일 1분선 투표를 업로드 및 유무념 체크



카카오톡을 활용한 1분선 유무념 체크



특별 이벤트

- 4축2재 출석 이벤트
 - 교당에서 열리는 4축 2재 행사에 참석하고 인증샷을 BAND에 올리면 바나나맛 우유 기프트콘을 증정
 - 석존성탄절, 법인절 2회 시행



총 단장이 쓴다



석존성탄절 법회에 참석하고 인증샷을 밴드에 올리면 바나나우유 선물!

돌아온 바나나맛 우유



볼금이냐! 법인절 행사냐! 그것이 문제로다! 당신의 선택은?



출석 이벤트 카카오톡 배너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 개발 교화프로그램

● 모두의 교리

-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을 원불교 교리를 접목시킨 게임으로 개발
- 주사위를 던져 도착하는 교리(지역)의 미션을 성공하면 지역을 점령
- 한 줄을 점령하거나 같은 색의 교리를 3세트 점령하면 승리
- 교전을 찾아보고 내용을 순간적으로 암기하는 미션으로 게임 참여자의 자연스러운 관심 유도과 교리 공부 효과



모두의 교리 제작 과정



모두의 교리 보드



활동 영상



홍보

- 카카오톡을 이용한 홍보
 - 배너를 제작하여 카카오톡 대화방에 업로드
- 개인적 인맥을 이용
- 한울안 신문/페이스북 광고

고양이 문제가 심각하다. 원불교는 신생 종교인데 불구하고 많은 종교 같은 느낌을 준다. 젊은 층을 향한 교화와 친밀은 어떠한가?
 세계 저명한 허깅·나눔·프로젝트는 두 가지가? 왜냐하면 너무 귀여워서 세계 대사의 측면을 잃어-무능으로 귀환서비스를 해준다

행아웃 접속하기

1. 스마트폰 접속

- ① 행아웃 이름을 다운로드
- ② 설치한다
- ③ 친구 또는 단체에게 친구 번호 또는 구글 계정 메일 주소를 알려준다
- ④ 그룹에 초대받는다
- ⑤ 네이더가 두세명이 아니라면 화이팅이 되는 곳으로 이동한다

* 모바일 접속 시 대화 중 문자 채팅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컴퓨터 접속 (캠, 마이크 필요)

- ① 구글 브라우저에서 설치 및 실행한다
- ② plus.google.com에 접속한다
- ③ 데스크톱에서 '행아웃' 검색 후 클릭
- ④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한다
- ⑤ 왼쪽 위의 '출' 버튼 클릭 후 행아웃을 찾아서 접속한다
- ⑥ 단체 또는 단체에게 구글 계정 메일 주소를 알려준다
- ⑦ /클에 초대받는다

21세기 법회는 집에서 볼 줄 알았다
최첨단 온라인 교화단

行-OUT

너의 생얼을 보여줘

행아웃 교화단이란?
 주 1회, 스마트폰만 있으면 OK
 인격 21세기형, 특급 전달 회는 프로젝트

문의 : 010 - 4124 - 4436 (김태우) / 010 - 4124 - 4436 (김태우)

행아웃 카카오톡 배너

스마트폰 하나면 못하는 것이 없는 그대,
 빠르게 설치만 언제나 2%가 부족한 그대,
 원불교 친구들이 그리운 바로 여기 그대,
행아웃-OUT 교화단에 초대합니다

상담장 김민수 010 - 4124 - 4436

한울안 신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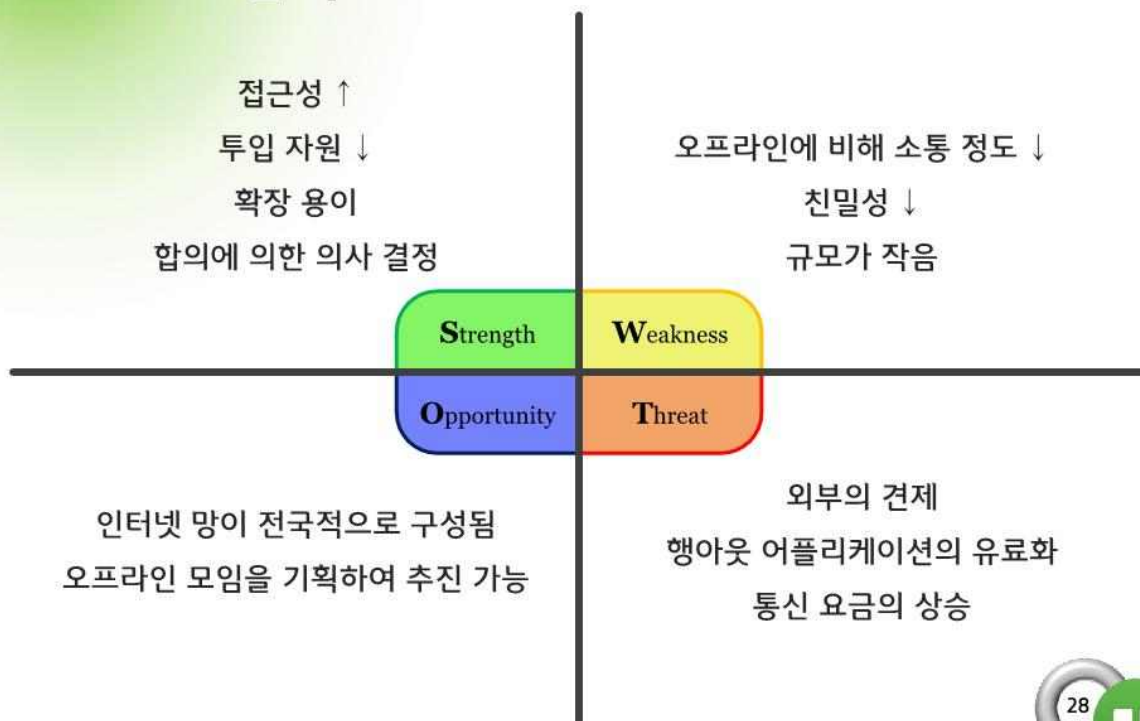


실시간 행아웃 연결

- 행아웃을 연결하여 함께하고 있는 교우의 소감을 잠시 듣겠습니다.



SWOT 분석



교화단 운영 개선 방향

- 6개월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
 - 지도인 주도 법회를 교리 공부하는 시간으로 개선
 - ✓ 교사를 주제로 매달 일정한 진도로 공부
 - 스페셜 토크 법회의 대체: 독서 법회
 - ✓ 연구부장(매달 새로운 주제 모색 및 프로그램 개발)과 단장(주제 진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 ✓ 책을 한 권 정하여 장을 나누어 읽고 각 내용에 대해 발제 및 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 단원추가
 - ✓ 대학 졸업생 중 일반 법회에 나가기 힘든 교도 확보
 - ✓ 시간상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 활동도 힘들다고 보류했던 교도에게 활동 재 권유
 -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
 - ✓ 기존 6개월 1회의 오프라인 모임을 2회로 확대
 - 번갈아 가며 단장 역할 수행
 - ✓ 가장 부담이 큰 단장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수행함으로써 역할에 대한 부담 축소
 - 편집부 운영
 - ✓ 법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단별로 작성 및 보관중인 마음일기를 문서 형태로 편집



활동 보고

1. 겨울훈련 및 발족식
2. 여름훈련
3. 오프라인 모임
4. 기타

활동 보고 - 겨울 정기 훈련 겸 발족식

- 2015.02.14-15
- 서울 유스호스텔



활동 보고 - 여름 정기 훈련 I

- 2015.08.29-30
- 익산 총부 상주선원



포스터



특강 및 과정활동



활동 보고 - 여름 정기 훈련 II



중법사님 배알



2019/06/15 11-11



2019/06/15 11-05



2019/06/15 11-08



성지순례

행아웃 발전 방향 논의

활동 보고 - 오프라인 모임

- 1단
 - 2015.05.31
 - 방배교당
- 2단
 - 2015.04.04
 - 익산 총부
 - 총부 성지순례 및 원대연 보은학교 방문
- 3단
 - 2015.05.09
 - 원불교 서울회관



활동 보고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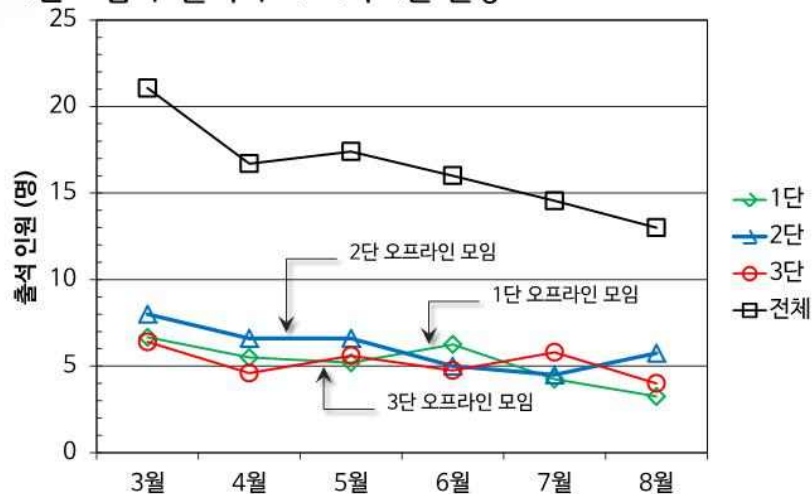
- 단장회의
 - 2015.03.01
 - 세종교당

- 여름훈련 기획회의
 - 2015.06.21
 - 신촌역 투썸플레이스



출석 현황

- 6개월 (3~8월) 평균 출석 인원: 16.5 명
-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출석인원의 감소 추세
 - 단원의 신분 변경(취업 등)으로 인해 단회 시간 참여 불가
 - 시작할 때의 흥미에 비해 반복되는 프로그램에 의한 피로감
- 오프라인 모임 후 출석 수가 회복되는 현상





기타

1. 예산
2. 미디어
3. 추진 사업
4. 온라인 교화의 다른 접근법

예산

- 수입
 - 회비 (초기 단계라 적게 책정, 직장인: 20,000원, 학생: 10,000원)
 - 찬조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찬조금 장려)
- 지출
 - 훈련비 지원
 - 단별 활동 지원
 - 교화부 출석 이벤트
- 예산 활용 내역 (잔액: 1,082,869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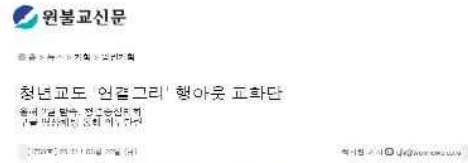
수입 (원)	내역	지출 (원)
1,133,470	회비 및 찬조금	
280,000	원기 100년 겨울훈련 수익금	
306,000	원기 100년 여름훈련 수익금	
229	결산이자	
	원기 100년 겨울훈련 비용	314,000
	원기 100년 여름훈련 비용	322,830
1,719,699	합계	636,830

미디어

- **한울안 신문 (2015.03.01)**
 -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의 탄생
- **원음 방송 (2015.03.23)**
 - 원음의 소리
 - 원음 초대석
- **원불교 신문 (2015.05.22)**
 - 청년교도 '연결고리' 행아웃 교화단
- **월간원광 (2015.08)**
 - 마음공부는 즐거워
 - 행아웃온라인교화단



한울안 신문, 2015.03.01



원불교신문, 2015.05.22



원불교신문, 2015.05.22

행아웃 온라인 교화단 추진 사업

- **목적**
 -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갖춘 원불교 대학생 인재 양성
 - 21세기 대학생들의 억눌린 에너지를 교법실천으로 응집하고 풀어낼 수 있는 공간 마련
 - 사회 속 다양한 인연들과의 만남을 통한 식견 확대
 - 침체된 대학생 교화에 새로운 활력소 역할
- **프로그램 개요**
 - **구성**
 - ✓ 1교시: 회화 및 멘토링
 - ✓ 2교시: 교리공부, 전임 강사 섭외.
 - ✓ 3교시: 교법실천가 초청, 세미나 및 토론
 - **수강 대상**
 - ✓ 심화된 교리를 공부하고, 사회와 관련된 이슈에 토론을 하고자 하는 원불교 대학생
 - ✓ 5-10인의 소수정예 양성 (1-2학년 선호)
 - **주관:** 원불교 청소년국 - 원대연
 - **사업 시행:** 서원회 김민수, 과원회 조세용

원기 백년 대학생, 대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2015년 가을학기 제1기 원불교 대학생 리더십 스쿨

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 10:00-13:00, 서울, 3학점 10주 (서명기간 포함)
 등록금 : [10-5] 만원 / 10만원 구 수료시 반액 환급 (역한 등록금)

1교시 : 내가 쓰는 시간	마음말 바꾸기
2교시 : 기초 다지기	교리 공부
3교시 : 세상에 눈을 뜨자	세미나 및 토론

* 원상 식사 제공

입학 문의 : 원불교 전국 대학생 연합회 / 서원회 김민수 / 과원회 조세용
 010-7011-4166 / 010-4124-4438 / 010-3999-3132

소셜 미디어를 활용 가능한 교화 모델

- 다음 TV팟, 아프리카 TV
 -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이 인기프로그램이 된 배경
- 팟캐스트



- 불교청년허브 “절오빠 절언니”에서 아프리카 TV, 팟캐스트를 소셜 스테이에 활용 중
- 진입장벽이 높음
→ 흥미를 끌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주요



불교 청년들이 기획한 소셜스테이



비전



원불교 교화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원하는 청년들의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된 온라인 교화단입니다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어여씨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민수 합장



발표 2

행복프로그램의 다면적 활용을 통한 미디어 교화모델

문은식 교무

▷ 서울교구

행복프로그램의 다면적 활용을 통한 미디어 교화모델 창출

문은식 교무(서울교구)

“일원교법에 행복의 날개를 달자”

1. 주세불 대중사님 모신 행복

많은 교무님들과 교도님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세상으로 뛰어들 생각을 했느냐구요. 그러면 저는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대중사님을 주세불로 모신 행복 덕분이라구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많지만 제 가슴 속에 항상 불타오르고 있는 기쁨과 서원의 원천은 다름 아닌 대중사님 만난 행복입니다.

교학과 시절부터 행복이라는 주제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해결해야할 화두였습니다. 그런 관심은 자연스럽게 긍정심리학을 접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었지요. 당시는 미국에서도 긍정심리학이 겨우 태동 하던 시절입니다. ‘행복의 과학’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한 긍정심리학은 지금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강렬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저에게 긍정심리학은 도전하기에 충분한 매력적인 과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교법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학문이 있다면 단연컨대 긍정심리학입니다. 이런 신념과 희망 속에 오랜 시간 긍정심리학을 연구하고 이를 세상에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체계적으로 행복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일지라도 대중사님의 교법과 그 정신이 빠진다면 그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전 인류를 근원적으로 행복하게 개벽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진리적인 우리 교법의 정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어떤 학문이든지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수학시절부터 서양에서 시작한 행복의 과학적 탐구인 긍정심리학과 원불교 교법의 만남은 그야말로 정신개벽을 촉진하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일생에 있어 두 번째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란 첫 번째는 출가를 단행한 것이요, 두 번째는 긍정심리학을 연구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종사님 교법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서원이 솟구친 것입니다. 해피체어를 만들어 문화교화의 새로운 도전을 꿈꿨던 것도 단순한 문화교화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이런 신념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 즉, 방송, 출판, 강의, 프로그램진행, 상담 등은 오직 대종사님 만나 마음공부 하는 행복과 긍정심리학의 영성적 콜라보레이션이라 하겠습니다.

2. 덜 종교적이고 더 영성적인

세상은 정말 총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변화는 일정한 패턴과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직관이 있다는 것은 시대를 향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다양하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대종사님께서 예견하신대로 사람들의 인지가 놀랍도록 빠르게 깨어나고 있다는 것이구요, 둘째는 미디어 및 교통 통신의 눈부신 발전입니다. 특히 SNS로 대변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소통창구들은 그야말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과 문명의 일대전환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마디로 사람의 마음이 깨어나고, 인터넷망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종교에 있어 심각한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종교는 비약적 발전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교단은 급속하게 도태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 일례로 현재 한국 기독교의 교인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며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의 이탈은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는 수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많은 미래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덜 종교적이고 더 영성적”으로 접근을 하라는 것이지요. 세상의 변화가 이미 종교적 권위, 전통적 문화, 교리적 도그마 등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옷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종교를 그냥 악세사리 정도로 취급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최대로 피를 보고 있는 집단이 바로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사람들은 더 영성적인 것을 찾고 있습니다. 종교의 껍데기에는 별로 관심을 안 보이지만 인간의 근원적 문제, 또는 본질적 힐링과 성장을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탕발림이나 공갈 협박조의 종교적 메시지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시대가 바짝 다가 왔다는 말입니다.

이를 많은 사람들이 “덜 종교적이면서 더 영성적인”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은 시대의 도도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에 최적화 되어 있는 종교가 바로 원불교라는 사실입니다. 원불교의 교리는 이런 시대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융합과 통섭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미래시대에 일원주의 교법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인류의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권위와 전통이 아닌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방향성이야말로 “덜 종교적이고 더 영성적인”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가장 알맞은 영적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준비를 제대로 한다면 가히 대종사님께서 예견하신대로 그 양양한 교운을 누구라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3. 콘텐츠가 세상을 움직인다

시대의 흐름과 비전은 분명 원불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기회를 활용할 만한 준비와 실력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정말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교화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 분석과 대안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콘텐츠의 빈약입니다. 바꿔 말하면 “덜 종교

적이고 더 영성적인” 콘텐츠를 풍요롭게 만들어 내면 원불교는 도약할 수 있고 시대의 흐름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 한다면 어두운 그림자가 더 깊게 드리워질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모든 경계와 장벽이 사라지는 이 때 가장 강력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콘텐츠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국가 권력이나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을 이뤄냈습니다. 자스민 혁명으로 부르는 중동의 민주화 바람도 결국 콘텐츠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콘텐츠라고 하면 단순한 문화개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기 좋은 동영상을 만들거나, 연극이나 작품 하나 제대로 만들어 올리는 정도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콘텐츠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개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불교가 “덜 종교적이면서 더 영성적인” 양질의 콘텐츠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느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 수준은 거의 흥부네 집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훈련법의 핵심인 11 과목조차도 양질의 콘텐츠화 하지 못 한 실정이니 다른 것은 보아 무엇 하겠습니까?

기독교가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는 이유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콘텐츠의 빈약입니다. 성경 말씀의 강압적 주입과 일방적인 선교활동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시키고 있지요. 시대적 아픔과 함께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영성을 위로하고 비전을 함께 찾을 수 있는 콘텐츠를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 이상 한국 기독교의 몰락은 더욱 빠르게 진행 될 것입니다.

원불교는 이 대목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단의 역량을 집중해서 다양하고 풍요로운 콘텐츠를 계발 보급하는 것이 곧 교운 융창과 교화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 마음공부 프로그램 하나를 놓고 봐도, 아직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흔히 스트레스 산업이라 하여 마음공부 또는 영성에 관한 수많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지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마음수련회도 이런 흐름에 있는 것이고,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토크 또는 힐링 콘서트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콘텐츠의 힘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한 때 교단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수계 농원 마음공부와 권도갑 교무님의 부부행복

캠프를 제외하면 대사회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라 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생각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사고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삼성이 아무리 반도체와 스마트 폰을 잘 만들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체계가 모두 애플이나 구글의 소프트웨어라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처럼 이제는 좋은 콘텐츠 개발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4. 인간의 행복, 웰빙, 전인적 영성의 완성을 향해

저의 화두는 원불교 교법과 긍정심리학의 융합입니다. 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원불교 행복론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라고 할 수 있고 그 핵심은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학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은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법이 통과 되었다고는 하나 일선 학교에서는 준비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민간 기관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돈을 벌 수단으로 인성교육을 바라보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매년 13개 정도의 교육청 또는 관공서 등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에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의뢰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지요. 그럼 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느냐? 그것은 제가 콘텐츠를 만들 때 반드시 지키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체험과 놀이 중심으로 구성 하고 참여자가 주체가 되게 합니다.
- ②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단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 ③ 프로그램 체험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개발했습니다.
- ④ 심리적 변화와 성장에 대한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 ⑤ 가족이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족 공동 치유 프로그램으로 발전 시킵니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기에 당연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가치가 ‘행복’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지요.

자, 이제 생각의 지평을 넓혀 봅시다.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콘텐츠 기획자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한 가지 상품으로 두루두루 널리 활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콘텐츠가 확실한 콘셉트를 갖고 있어야 하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됩니다.

제가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교실이나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시간 말고도 각종 미디어와 방송 매체를 통해 전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관된 주제와 흐름이 명확해야하지요. 저는 그 것을 “행복”으로 잡은 것이고 이는 어떤 상황 어떤 대상에게 적용해도 좋은 매우 보편타당하면서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핵심에 원불교 교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제 활동은 크게 네 방향으로 전개합니다. 첫째는 출판입니다. 그동안 사은님의 은혜로 4권의 책을 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입니다. 둘째는 방송입니다. KBS 아침마당을 비롯해, EBS, 원음방송, 교통방송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강의와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현대로 약 15개 정도의 교육청 또는 관계기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담활동 및 힐링 콘서트 진행입니다. 상담 활동은 개인별 치유를 말하고 힐링 콘서트는 주로 청소년국과 함께 하는 수다콘서트 또는 심심풀이 콘서트를 말합니다.

이 게 바로 원소스 멀티유즈입니다. 행복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매우 다양하고 일관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앞으로 교단은 이런 콘텐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결국 원불교 최대의 장점이기도하고 시대의 도도한 흐름이기도한 통합과 융섭, 종교의 울을 넘어선 더 영성적인 콘텐츠의 개발과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들은 인간의 행복과 웰빙, 전인적 영성의 완성을 지향하면 됩니다. 그것은 인류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핵심 소망이기 때문이며 원불교가 여기에 부응할 수 있을 때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주세교단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일원교법에 행복의 날개를 다는 일입니다.

발표 3

미래교회를 위한 교도중심 창의적 교회공동체 모델 창출

김영찬 교도

▷ 강남교당

미래교화를 위한 교도중심의 창의적 교화공동체 모델창출(원불교미래교화를 위한 강남교당의 꿈)

김영찬 교도(강남교당)

1. 원기 98년까지 강남교당교화 - “좋은 교당 만들기”

- ◆ 오고 싶은 교당, 오면 행복한 교당
(강남교도의 자긍심을 높임)

2. 원기 99년이후 강남교당교화 - “매력있는 교당 만들기”

- ◆ 가보고 싶은 교당, 머물고 싶은 교당
(‘미래로 사회로’를 지향하는 교화)

3. [강남교당이 추구하는 교화모델] - 매력있는 교당

3-1. 대도시교화(대형교당 아님) · 가족교화 · 문화교화의 모델
(천불도량추진위원회, 새교당준비위원회, 원문화센터에서 준비)

3-2. 재가출가가 함께 춤추는 교당

- ◆ 교도중심의 교화공동체-교도의 교도에 의한 교도를 위한 교당
출가 - 법회, 의식, 훈련, 상담
재가 - 교화(교화위원회), 운영(운영위원회)

3-3. 교화단 중심교화(향단중심 - 특색있는 교화단운영)

- ◆ 강남교당은 교화단이 교당이다.
(가장 작은 교당-교화단에서 교당내왕시주의사항 실현)

◆ 단장, 중앙이 교화의 핵심-역량개발훈련

3-4. 지역사랑의 광불도량 - 지역주민을 위한 교당

- ◆ 작은도서관, 북카페, 생협, 자원봉사센터설치, 교당공간 지역개방
(지역 주민의 필요를 채워줌)

3-5. 청소년교화의 모델(지역학교와 연계된 교화)

(원학습코칭, 생태학교, 어린이합창단 등)

- ◆ 강남장학회, 도진화장학회와 연계

3-6. 문화교화 - 미래교화는 문화가 답

(예술인의 조직화와 활동지원, 공연장운영, 출판물 발간)
합창단, 성가대, 밴드 등 연주단의 활성화

3-7. 교당의 훈련도량화 - 강남선원(도심속 명상스테이)

(11과목을 통한 교법체득, 禪도량, 기도도량)

3-8. 원불교의식의 사회화 - 영모전 설치

- ◆ 태교에서 내생까지 챙겨주는 교화
(원불교가례 문화의 선도와 사회화)

3-9. 미디어교화

- ◆ 영상시스템완비, 미디어 교화콘텐츠의 적극 개발, 활용
(강남홈피, 강남카페, 원불교TV를 활용한 교화)

3-10. 소모임의 활성화 - 樂道의 교당

- ◆ 바람직한 여가문화 선도(현재 취미동아리-원코러스, 원트레킹, 개벽밴드,
섹소폰앙상블, 우쿨렐레, 하모니카, 판소리, 난타, 손뜨게반)
- ◆ 자발적인 수행풍토조성(현재 사경팀4, 교리교실2, 기도반, 선방팀6개)

4. 원불교 미래교화의 나아가야 할 방향(제언)

- 1) 거점중심의 교화성공 모델 만들기
대도시,중도시,소도시 등의 교화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교당 필요
- 2) 교당의 규모화(현대는 농경사회의 사랑방시대가 아니다)
- 강남교당의 다양한 교화는 규모를 기초로 하고 있다.
- 3) 고객중심의 교화정책(고객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화)
- 아무리 교법이 좋아도 고객이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 4) 문화를 바탕으로 한 교화콘텐츠 개발
- 5) 시대정신을 읽고 향도하는 창조적인 교화방법론 개발
- 6) 청년, 청소년교화의 집중 투자와 활성화 모색

발표 4

다문화가정 교화사례 발표

정인덕 교무

▷ 원불교 남원교당

다문화가정 교화

정인덕 교무(남원교당)

1. 한국의 다문화 사회 진입

1990년대 말, 주한 외국인인 미군, 관광객, 산업연수생 등을 포함하여 38만여 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5년 현재 한국에는 174만 명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국민 100명 가운데 3.5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한국 사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의 숫자는 매년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최초로 제정되어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 2008년 3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정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를 보면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 출신이 101만 여명(58%)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이 20만(11.5%), 미국·필리핀이 7만여 명으로(각각 4%), 캄보디아 46,560, 일본 41,855, 인도네시아 39,750, 태국 30,195, 남부아시아 86,634, 중앙아시아 49,667, 러시아 11,447명 등이다. 체류자의 연령별로는 20~29세가 28%로 가장 많고 30~39세 25%, 40~49세 19%, 50~59세 15%, 60세 이상 9%, 9세 이하 4% 등이었다.

다문화가족을 이루는 결혼이민자(147,300), 혼인 귀화자(92,300), 기타사유 국적 취득자(65,700) 등은 2015년 현재 30만 5천여 명에 달한다. 미 국적취득 이민자는 147,382명(남 22,309, 여 125,073)이며, 국적취득 귀화자는 158,064명(남 29,346, 여 128,718), 이

다.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여성이 85.7%를 기록하며 대부분을 차지했다.

2. 원불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 다문화(多文化)사회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다문화의 범주에는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남성여성, 외국인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 4가지가 있다.

원불교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한 것은 교당 부설로 결혼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이다. 2004년 남원교당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필리핀 이주여성의 자녀가 입학했는데 엄마로부터 한국어를 배우지 못함에 따라 의사표현을 몸짓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2006년 전북도청에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을 인가받았으며 2008년에 남원시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정부예산을 받게 되었고 2007년 익산시, 2009년 무주군센터, 2010년 정읍시센터, 2012년 순창군센터가 차례로 위탁받게 되었다.

남원시,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원불교 여성회 법인인 사단법인 ‘한울안운동’에서 운영하고, 정읍시는 복지법인 한울안, 무주군은 복지법인 삼동회, 익산시는 원광대 등으로, 2015년 현재 전북 14개 지자체중 5곳을 원불교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센터의 일반적인 사업내용은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아동보호 교육, 언어발달 교육, 방문교육, 원격교육, 직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 상담, 사회적응 교육, 가족생활 교육, 생활정보 제공, 통번역지원 사업, 특성화 사업, 2중 언어 환경조성 사업, 등이다.

원불교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타종교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자연적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것은 세계주세교단, 즉 세계교화를 위해서이며 다문화가정 교화가 세계교화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외에서 현지인을 교화하는 것보다 국내로 이주해 온 이들을 교화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대체로 하층민들에 속하기는 하나 오히려 이들을 잘 보살피고 교화하면 쉽게 동화될 수 있으며 친정가족들도 교화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교화

1) 다문화 가정의 실태

다문화 가정을 이루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결혼이민자, 혼인귀화자, 기타 국적취득자로서 우선 농촌 지역의 노총각들이 국내의 여성들과 결혼의 기회가 쉽지 않아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여성들을 찾게 된다. 이는 도시의 빈곤 노총각들도 유사하다. 따라서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신부보다 나이차이가 많고 학력이 낮으며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다. 결혼이주 여성들 역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에 오므로 저학력, 언어소통 문제, 한국에서 취업 등이 난제이다. 주로 농사일이나 식당, 공장, 학교와 학원에서 외국어 교육의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또한 자녀들은 어머니의 한국어 대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시부모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은 이방인이다 보니 모든 부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특히 소도시와 농촌의 경우 남편의 가정폭력이나 음주, 심리적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 그리하여 가출이나 모국귀환, 이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장점도 없지 않다. 가장 큰 장점은 자녀와 가족들이 엄마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빠르게 국제화 글로벌화 되는 시대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건실하게 성장하여 위와 같은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외교, 경제교류, 민간외교 등, 양국의 공동이익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나라와는 국가 간에 모든 관계가 소홀히 하기 어렵고 관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2015년 6월 3일부터 8일까지 5박6일간 감로교화재단 지원을 받아 다문화센터 연합의 초청으로 실시한 베트남 공무원 7인과 9인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가장 관심 있고 감명 깊게 생각한 부분은 그들의 교민들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였는데 “교민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가?”를 느끼는 것이었다. 인술 단장은 감격스러웠던지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4. 다문화가정의 교화

1) 다문화가정 교화의 개요

원불교 최초의 해외교화는 일본의 식민통치 시대인 대종사 재세시 중국만주 목단강과 일본 대판에 처음으로 해외교당을 열어 대륙과 해양 두 지점에 교화의 포석을 놓았다. 이후 교역자들이 해외에 직접 파송되어 교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화를 해왔으나, 지금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한국이민을 해 오므로서 국내에서도 외국인 교화가 가능해졌다.

원불교 교당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교화대상이 센터직원, 결혼이주여성 과 남편, 자녀들인 청소년, 어린이, 나아가 시부모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사업을 시작한지는 현재 교당에 따라 대략 5~10년 정도 되어가고 있다. 이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면 교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교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교화의 어려움으로는

(1) 교역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당부설 다문화센터에 근무하는 교역자들은 일반교도 관리와 다른 업무에 바쁜 관계로 센터 이용자들을 교화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2) 직원들의 교화 마인드에 한계가 있다.

매일 이주여성들을 대면하는 사람은 직원들이다. 직원들이 신심 있는 교도로서 교화 역량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원불교로 안내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직원들은 직원으로 인식할 뿐이다.

(3) 서비스에 대한 고정적 관념이다.

다문화 가족들이 받는 모든 서비스는 원불교나 법인이 제공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아마도 센터 직원으로 교역자가 일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하여 직원교화나 이주여성, 그리고 가족교화의 실적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2개 센터는 지금까지 교화 여건이 어려웠던 상황인데, 한 곳은 기독교에서 운영하던 곳을 위탁 받은 지 4년쯤 되었으며 다른 한 곳은 종합복지관내에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당과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므로 직원이나 이용자들이 원불교의 정서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건이 다소 유리한 정읍은 그동안은 다문화 교화가 부진하였으나 교역자 인사이동으로 이제 적극적 사명감으로 임하기 때문에 멀지않은 장래에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남원은 다문화사업 역사가 10여년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며, 현재 전체 직원17명중 교도가 14명이며 결혼이주여성들 5~6명이 일반법회에 참석하고 있다. 다문화 직원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교도이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저녁 직원법회에는 전 직원이 참여한다. 그 밖에 결혼이주여성과 그의 가족교회는 다문화센터가 아닌 원불교여성회와 많은 교당에서 직간접적으로 교화를 하고 있다.

2) 다문화가정교화 프로그램 진행

남원, 무주, 순창, 정읍 4개 센터가 연대하여 감로교화재단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족 교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민간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교당은 2010년부터 센터 통번역 직원으로 근무하는 베트남 이주여성의 고향, 호치민 동탑성도 라이봉군 초등학교 학생 돕기와 봉사활동을 매년해오고 있는데 2012년 이 지역 공무원들이 다문화센터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이사업이 확대되어 2014년 사단법인 한울안운동과 라이봉 군청(인구 15만 명)이 업무협약을 맺고 양국 청소년 인재양성 및 민간교류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베트남 지자체 고위공무원들과 학생들이 지난 6월, 한국에 2차 방문하여 중앙총부, 남원, 정읍교당을 방문하고 우리 법인의 실체를 이해하였으며 또한 한국의 발전상을 몸소 체험하고 돌아갔다. 내년에는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 외가 집 나라인 베트남을 방문하여 언어와 문화를 익히게 될 예정이다.

감로교화재단 지원 교화사업의 핵심은 베트남의 공무원과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교류를 돈독히 하고 국내에서 4개 교당이 20여 베트남 이주여성가족 (60여명)을 종교유무, 교화가능성, 원불교 호감도 등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원불교 교리와 예절을 지도하고 아이들에게는 베트남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들끼리 동포애를 느낄 수 있도록 벌곡 삼동원에서 1박2일의 합동 캠프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다. 캠프를 통해 예비 원불교 교도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동질감, 친밀감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 행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사업은 감로재단의 지원을 계기로 교화의 결실을 거두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교 화,

교육, 복지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중보은으로 원만한 인격을 기르는 신앙과 수행의 기초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이 설 수 있도록 센터 직원들과 교무들은 지속적인 모임과 회의 훈련을 하며 지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2차에 걸쳐 방문한 베트남 고위공무원과 센터 교무, 그리고 사단법인 한울안운동 한지성 이사장과 임원들이 함께한 간담회에서 베트남 호치민에 지부를 설립하고 여성 자립관과 어린이 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그들도 돌아가 후속 절차를 적극적으로 상의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베트남 라이봉군 인민위원회 간부들과 논의하고 있다. 감로재단의 후원을 받은 청소년들이 향후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면서 양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센터의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이 늘어나고 국제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힘이 쌓일 것이다. 나아가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위의 4개 교당에서는 가칭 ‘원불교 다문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다문화교화를 위한 연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익산까지 모여지면 5개 기관과 교당이 연합으로 다문화교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3)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화

서방 선진국들에 비하면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아직 많지 않으며 어린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교화의 사명은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으므로 사춘기 시절 자기 정체성의 혼란과 주위의 차별 시선으로 인해 고립감과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4월16일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한국계 대학생 조승희 씨가 총기를 난사하여 본인을 포함하여 32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은 온 나라를 충격으로 빠뜨렸다. 조승희 씨의 경우 개인의 아픔일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다문화자녀 교육이 실패했을 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그의 어머니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였고 그는 학교에서 늘 외톨이로 학우들과 교제도 거의 없었다. 인종차별로 욕설과 모욕을 당했으며 자칭 거사를 치른 후 “당신들이 나를 이 코너로 몰아넣었다. 당신들 때문에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고 하며 자살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교훈이다. 2005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이슬람계 청소년들의 폭동이 있었다.¹⁾ 프랑스인들에게 북아프리카 이주민 가정의 청소년들은 직장도 없이 교외에서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절도와 폭행, 일탈행위 등으로 사회 불안세력으로 낙인이 찍혔다. 이들 이슬람계 청소년들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이 깊어 계기만 되면 폭발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 10월27일 파리 교외에서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던 10대 두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그동안 차별과 무시 속에 억눌려 왔던 이민자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11월17일까지 3주에 걸친 소요로 차량 9천대가 불탔고,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체포되었으며,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들도 100여명이나 부상을 입었다. 프랑스 정부는 비상사태 법을 발동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식민지가 아닌 프랑스 본토에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리기 까지 했다.

그리하여 남원 교당에서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청소년 시절부터 자아와 진리관 국가관 사회관 등 올바른 인성함양과 정서지도를 위해 기업체로부터 프로그램 비용 지원을 받아 15명의 중고생 청소년들이 4박5일의 일정으로 엄마 나라인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으며 여행을 하는 동안 이들은 상호 동질감을 느끼며 대단한 친숙함과 꿈과 희망을 보이기도 하였다. 교당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호기로 삼아 앞으로 청소년 교화 차원에서 매월 정기모임을 실시하여 다문화센터 교도 직원과 청소년 담당 교무가 투입되어 진로지도와 상담, 원불교 이해 등, 각종 지원을하기로 하였다.

4) 다문화 어린이 교화

남원교당 부설 혜중원광어린이집 원아의 60명중 40% 이상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이다. 몇 년 전 80여명의 원아들이 유지되었으나 최근 일반 아동 학부모들이 다문화자녀들이 많고, 사실은 아니지만 그들의 언어발달이 늦다는 편견으로, 또한 부모들의 문제나 가정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입학을 기피하여 원아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문화자녀들이 다른 어린이집보다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아동 숫자의 감소를 감수하고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특수 집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다문화 역사가 짧은 관계로 청소년도 있지만 초등학교생이나 유아들이 대부분이다.

1) 아시아 평화인권센터 자료 <http://www.sopra21.org>

다문화 어린이 교화는 다행히 남원교당의 경우 초등학생을 위한 29명 정원의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유아, 초등생, 학생회까지 연결되므로 교화여건이 다소 낯은 편이다. 그리하여 지난여름 1박2일 캠프에 45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바 있다. 또한 감로교화재단 지원 사업 대상자 자녀들의 2중 언어 교육 13명의 아동들에게 교육 후 원불교 교재(‘그렇지! 나는 원래 훌륭한 사람이니까!’)로 매시간 30분씩 지도하고 있다. 다문화자녀들 중에는 일찍이 부를 여의거나 부모 이혼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이 있어서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도 절실한 상황이다. 결손가정에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평소 생활이 정서적으로 위축 되어 있고 간식이나 식사 등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국의 교화가 중요하나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원의 법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방법적인 면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국내교화와 더불어 해외교화는 개인이나 한두 곳의 교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몇 개의 교당, 또는 지구가 공동으로 인적, 경제적 지원을 하여 안정과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 그래야 해외에 파견된 교역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교도들이 현지 견학을 하면 후원자를 발굴하는 기연도 될 것이다.

둘째, 국내에서 교화한 다문화가정을 통해 현지의 공무원 그리고 친정가족, 친지, 친구들과의 관계를, 사전에 교류 등으로 강화한 후 그 나라 교화의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모든 해외교화가 전혀 인연 없이 가는 경우는 드물지만 현지에 한국인보다 현지인의 인연이 많다면 교화하기는 보다 수월할 것이다.

4. 맺는 말

한국은 2007년 ‘외국인처우기본법’이 처음 제정되고 이듬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현재 전국 214개 자치단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세계주세교단 기반을 위한 세계교화에 커다란 사명을 가진 원불교가 현재 외국인근로자센터와 안산국제교당, 다문화센터 5곳 등,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화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적다. 해외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화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교화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다문화가정을 해외교화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국에 딸을 시집보낸 모국의 부모 형제들과 관계형성은 현지교화에 커다란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친구들을 교화하는 일은 현지교화와 비교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현지에 교당

을 설립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단에서는 다문화센터를 전국 몇 곳에 더 설치의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앞으로 주한 외국인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들의 경향도 지금은 근로자나 동남아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유학생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처럼 상류층들이 한국으로 이민 오는 날도 있을 것이다.

다문화교화가 종법사님의 염원처럼 현재의 원불교 교화현실을 고려해볼 때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에 비해 교단의 관심이 적었다. 물론 지금은 기존 캄보디아 바탐방을 비롯해 삼동인터내셔널에서 미얀마, 라오스, 몽골 등을 개척하고 있으며 베트남, 태국도 교역자를 파송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이곳 동남아시아는 한국보다 젊은이들이 많고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교화를 잘하면 인재양성도 유리하다. 외국인 인재양성은 교역자라 하더라도 국내 전무출신과는 그 관리 방식이 달라져야 하겠다.

동남아에서는 유학과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많다. 따라서 국내와 국외에서 동시에 교화의 시스템을 작동하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바탐방 교당에서 교화한 청년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일하러 온 경우, 지역의 교당에서 그 청년을 지속적으로 보살피 주면 그 청년이 캄보디아 교화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한 때이다. 교화는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끈을 놓지 않고 불공을 드려야 가능하다. 다문화가정을 통한 국내교화와 더불어 해외교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 메 모 ■

■ 메 모 ■